

* <출판저널>은

청소년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도서
선정 목록, 리뷰, 청소년 문화공간
'하자센터' 를 소개한다.

책 읽는
청소년이
아름답다

이 달의 청소년 도서선정 경위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와 재단법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사장 김낙준)은 공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심어주고 교양 증진과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들이 읽기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 보급하고 있다.

교육, 문화, 언론 및 출판계 인사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측은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국내 도서를 대상으로 청소년 교양 및 정서함양에 적합한가, 창의성 또는 논리성을 높이고 탐구심이나 지적 호기심을 고취하는가, 청소년 교육향상에 기여하는가 등의 심사기준을 적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청소년 도서를 선정한다. 2002년도 3차분 청소년 도서에는 종교·철학, 과학·기술, 역사, 인문사회, 문학·예술 총 5개 분야에서 19종의 책이 선정됐다.

이 달의 청소년 도서목록 (2002년도 제3차)

분야	도서명	저·역·편자	출판사	값
종교·철학	《백악관 뒷골목의 성자들》	최상진 저	예영커뮤니케이션	10,000원
	《영화관 옆 철학 카페》	김용규 저	이론과실천	18,000원
과학·기술	《앞으로 50년》	존 브룩만 저·이한음 역	생각의나무	17,500원
	《과학, 그 위대한 호기심》	서울대학교 자연대 외 저	궁리	12,000원
	《그곳에 가면 새가 있다》	김해창 저	동양문고	13,000원
역사	《역사의 혼 사마천》	천통성 저	이끌리오	16,000원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이슬람학회 저	청아출판사	14,000원
인문·사회	《페트라 켈리 나는 평화를 희망한다》	새라 파킨 저·김재희 역	양문	9,800원
	《이봉창 평전》	홍인근 저	나남출판	15,000원
문학·예술	《이동인의 나라 1,2,3》	신봉승 저	동방미디어	8,000원
	《네 이웃을 사랑하라》	피터마쓰 저·회정숙 역	미래의 창	12,000원
	《새롭게 읽는 한국의 신화》	조성기 저	동아일보사	12,000원
	《월북 예술가 오래 잊혀진 그들》	조영복 저	돌베개	12,000원
	《한국의 마애불》	이태호 외 저	다른세상	45,000원
	《걷기 예찬, 다비드 르브르통 산문집》	다비드 르브르통 저·김화영 역	현대문학	11,000원
	《바이칼》	김종록 저	문학동네	12,800원
	《곽재구의 포구기행》	곽재구 저	열림원	9,500원
	《스무 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	웬디 패리스 저·변용란 역	명진출판	8,000원
	《불의 지문》	정몽주 저	우리문학사	8,000원

책 읽는
청소년이
아름답다

자연, 종교, 예술을 한몸에 담고 있는 부처를 만나다

*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인간, 인간의 신앙, 그리고 예술을 함께 아우르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 흔히 돌 위에 새겨진 부처라고 부르는 '마애불(磨崖佛)'을 보면 그 지혜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한국의 마애불》은 우리의 불교미술 역사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마애불의 역사를 찾고 있는 책이다. 저자들은 남북한을 포함하여 한국의 마애불이 있는 장소를 찾아다닌 노력들을 책 한 권에 담았다. 전체 2부로 나뉘어진 책 속에는 마애불의 신앙적 의미뿐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 역사적인 의미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둥글넓적한 얼굴, 해맑은 미소의 주인공인 백제의 마애불, 기복신앙이 유행했던 시대에 거대한 크기로 완성되었던 고려시대의 마애불 등 시대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마애불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그리고 저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마애불에 투영된 한국인의 심상'을 읽는 것은 또 다른 재미다.

'형태와 모양은 다르나 우리 마애불의 특성은 마애불을 새긴 암벽이나 바위의 자연 그대로를 변형하지 않았다'는 저자들의 말처럼 우리의 선조들은 바위에 담긴 정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감정이 녹아든 마애불을 조각했다. 그 원형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려는 배려, 종교적·역사적·예술적 의미뿐 아니라 마애불 속에 담긴 선인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보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마애불

이태호·이경화 지음 |
사진 유남해 외 | 다른세상 |
489쪽 | 값 45,000원

철학으로 영화보자

*

영상문화가 발전하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간다. 그렇지만 대중들에게 인기있는 영화는 단순 킬링타임용 영화들뿐이다. 의미 없는 폭력이 난무하고, 선정적인 장면들만 등장하는 영화들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좋은 영화를 제대로 보고, 깊이 있게 이해해보자는 책이 나왔다. 팬타지와 철학을 결합한 소설 《알도와 떠도는 사원》(이론과 실천)을 썼던 김용규 씨가 낸 《영화관 옆 철학카페》가 그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유명하진 않지만 가치 있는 영화들을 '철학'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맛있게 되씹는다. 그나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부터 난해하다는 평을 받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솔라리스>까지. 저자는 사랑, 희망, 행복, 성, 시간 등 삶의 6가지 보편적 주제를 통해 영화를 이해하고 있다. 그동안 영화관련 책들이 수없이 나왔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난해하다'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단순 에세이'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화관 옆 철학카페>는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선에서 '영화'와 '철학'을 논한다. 책은 '영화'보다는 '철학' 쪽에 더 무게를 실고 있지만 해당 영화를 좀더 꼼꼼하게 보고, 평소 습득했던 지식을 토대로 책을 접한다면 김용규 씨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다.

'이 책이 시도한 해석은 '유일한 해석'이 아니라 '수많은 이해 가능성' 중 하나다'라고 말한 저자는 '철학'과 '영화'가 다양한 이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대중적인 문화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책제목에 쓰인 '카페'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내가 읽은 영화의 다른 해석을 들어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영화관 옆에 있는 '철학카페'를 찾길 바란다. **추천**

김청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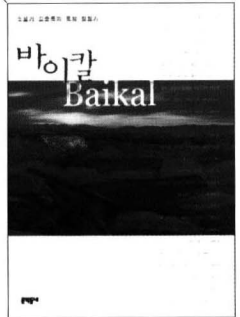


영화관 옆 철학카페

김용규 지음 | 이론과실천 |
414쪽 | 값 18,000원

우리 민족의 원류 바이칼 호 기행, 신비하고 고고한 역사의 현장을 찾는 인문적 도정

*



바이칼
김종록 지음 | 문학동네 |
280쪽 | 값 12,800원

〈바이칼〉의 저자 김종록은 발로 글을 쓰는 작가이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글쓰기를 미뤄두고 한민족의 정체성 찾기와 천·지·인 삼재사상 탐구를 위한 여행을 계속 해왔다. 이런 그의 분주한 행보는 역사와 전통을 오늘의 시점으로 불러내 재조명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에 다름아니다. 〈바이칼〉을 쓰기 위해 그는 네 차례나 현지를 답사했다. 황량한 몽골 국경을 넘어 러시아 땅으로 들어서자마자 만나게 되는 바이칼 호는 시베리아 밤하늘에 걸린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이국취향적 감상이나 에피소드들을 늘어놓은 단순한 기행기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원류가 대륙의 중앙 바이칼임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중후한 역사 교양서이다.

오랫동안 갈 수 없는 땅으로 전설이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땅이었던 시베리아와 만주. 저자는 그곳에 남아 있는 우리 시원문화의 현장을 밀착 취재한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서낭당, 솟대, 석장승은 저자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 그곳에서 저자는 시공을 가로지르는 우리 민족 고유의 생생한 숨결을 느꼈다. 또한 저자는 한국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브리야트인과 만났을 때 우리 민족의 원류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만주 벌판이나 시베리아를 이제 우리는 역사의 장으로 인정하고 거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연대를 모색할 수 없다. 바이칼은 북방 역사와 문화가 집약된 교육의 현장이다.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은 너무나 나약하다. 교실과 학원, 그리고 14인치도 안 되는 모니터 화면 속에 갇혀 지낼 뿐이다. 삶의 현장에서 호연지기를 기르지 못하고 오락과 영상의 세례를 받으며 연약하게 자랄 뿐이다. 이런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이 책은 많은 것을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당당한 주체로서 고고한 민족의식을 배울 수 있다.

시베리아, 러시아, 바이칼, 몽골은 새롭게 조명받고 있으며 머잖아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고 개통되면 만주와 시베리아 대륙이 수학여행 코스나 생태기행 코스로 부상할 수 있다. 유럽의 선진문화를 탐방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의 분향에 대한 탐방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작업이 아닐까. 이 책은 소설가이자 인문학도인 저자가 그를 키워낸 역사에 바치는 고백서이며 우리 출판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바이칼 관련 교양서적이라는 점에서 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도연**

김도연 기자

모여라! 청소년의 공간 하자센터!

스스로 업그레이드해 가는 아이들 - 하자센터 이야기

우리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는 '문화'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영역 모두에서 한국사회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1999년 '하자센터(공식명: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 센터)'라는 새로운 청소년 공간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교육과 체험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간다. 이곳의 이야기를 담은 '하자총서' 두 권이 발간되었다.

제1권 《왜, 지금, 청소년?》에는 하자센터가 만들어진 과정이 담겨 있고, 제2권 《놀자! 하자!》에는 하자센터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10대들의 모습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담았다. 하자총서를 만든 이들이 밝혔듯 이 두 권의 책은 하자센터(www.haja.net)라는 공간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청년 문화 작업자, 교육자, 그리고 10대 친구들을 위한 가이드북이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하자 보수'가 필요한 '홈'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업그레이드해가는 이야기가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성숙한 아이들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문화 촉매자'이며 '문화 매개자'로 스스로 진화해가는 생생한 기록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다.

* 하자총서 1권

《왜, 지금, 청소년?》
조한혜정·양동영·서동진
역음 | 또하나의 문화 |
334쪽 | 값 8,000원

* 하자총서 2권

《놀자! 하자!》
전효관·김희욱·최수정
역음 | 또하나의 문화 |
336쪽 | 값 8,000원